

# 나주 광남고 야구부 창단...전남 세번째

예비 신입 9명 등 26명으로 꾸려 감독에 프로야구선수 출신 강경민 농어촌 학생에 체육교육 기회 축구·컬링·골프부 창단도 검토

전남고교 야구가 3개 고교 체제로 확대 된다.

나주 광남고등학교가 순천 효천고, 화순고에 이어 야구부를 창단했다. 광남고 야구부 창단은 화순고(2002년 창단)에 이어 17년만이다.

광남고(교장 이창호)는 5일 공식 창단식을 열었다. 이창호 교장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체육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중점학교로 성장하고자 야구단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야구부에는 프로야구선수 출신으로 초·중·고·대학교 야구부 등에서 23년간 코치 등을 역임했던 강경민 감독과 김다빈·정성철 코치가 함께한다.

신수는 2020학년도 예비 신입 선수 9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으로 꾸려졌다.

야구부 창단은 내년도 신입생 유치를 위한 교직원 회의에서 체육 분야 진로·진학 꿈을 가진 학생들을 흡수하지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추진됐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제



광남고(교장 이창호) 야구부가 5일 학교에서 창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남고 제공>

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직업과도 연계하는 구상이다.

학교 측은 일반 진학반과 함께 개인종목이나 전담체육회에서 권장하는 체육 종목 위주로 스포츠반을 육성해 타 학교와 차별화된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 첫 사업으로 야구부를 창단했고 이

후 축구부, 컬링부, 골프부 창단을 검토 중 이다.

올해 7월 첫 야구부 선수 학생 전입을 받았고 지난 9월 운동부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야구부 운동장과 실내 타격 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하고 지난달 야

구부 창단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 교장은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을 제공해 체육 분야 전문인 육성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4년 설립된 광남고는 전체 학생 92명 규모의 사립고등학교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2년만에 NFL 재입성한 한국인 키퍼 구영희 "방출 후에도 포기 않고 기량 갈고 닦았다"

애틀랜타 펠컨스와 계약

한국인 키퍼 구영희(25·애틀랜타 펠컨스)의 미국프로풋볼(NFL) 재입성은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으로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다.

구영희는 5일(한국시간) 미국 애틀랜타 지역지인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에서 방출된 순간을 떠올리며 "그러한 역경은 키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간 구영희는 조지아 서던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 5월 차저스 구단에 입단했다.

프리 시즌 동안 기량을 인정받은 구영희는 주전 키퍼 조시 펠보를 밀어내고 차저스의 개막전 키퍼로 낙점받았다.

하지만 구영희는 데뷔 시즌 첫 4경기에서 6번의 필드골 시도 중 3번 성공에 그친 뒤 2017년 10월 방출당했다.

키퍼는 잘해야 본전이 포지션이다. 그런데 구영희는 첫 두 경기에서 팀의 승리와 직결된, 결정적인 필드골을 잇달아 실축했다.

구영희의 재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구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AJC에 따르면 구영희는 방출 이후 전설적인 키퍼인 존 카니와 훈련하며 실력을 갈고닦았다.

카니는 NFL에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활약한 레전드 키퍼다. 구영희는 46세까지 NFL 무대에서 뛰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카니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며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구영희는 "내 기술을 완성하려고 애썼다"며 "실수를 없애려고 매일 훈련했다. NFL에서 23년간 댄 카니에게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구영희는 올해 2월 출범한 미국 신생 풋볼리그인 AAF(Alliance of American Football)에서 애틀랜타 레전드 소속으로 14번의 필드골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AAF 애틀랜타 레전드 소속 시절 구영희. /연합뉴스

않고 모두 성공했다.

AAF에서의 활약을 통해 달라진 기량을 입증한 구영희는 수많은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끝에 결국 애틀랜타와 계약에 성공하며 NFL 재입성의 꿈을 이뤘다.

그는 "나는 신념을 잃지 않고, 기량을 연마했다"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고 했다. 오히려 나에게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방출은 키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었다"며 "나는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섰다"고 했다.

구영희는 "2년 전의 경험 덕분에 NFL에서 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됐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9주 차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고 한 주 휴식을 취한 애틀랜타(1승 7패)는 11일 뉴올리언스 세인츠(7승 1패)를 상대로 10주 차 경기를 벌인다.

구영희는 "팀 적응은 쉬웠다"며 "모든 선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한 주 휴식을 취한 것도 적응하는데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도전

한국·미국 달성...일본만 남아 현재 1위...시부노와 경쟁 치열 LPGA 저팬 클래식 8일 개막

사상 최초의 한·미·일 3개 투어 상금왕에 도전하는 신지애(31·사진)가 8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토트 저팬 클래식(총상금 150만달러)에서 9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린다.

LPGA 투어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대회는 8일부터 사흘간 일본 시가현 오쓰시의 세타 골프코스(파72·6659야드)에서 열린다.

중국과 한국, 대만으로 이어진 '아시아 스왕'의 마지막 대회인 토트 저팬 클래식은 3라운드 우승자를 정한다.

2008년과 2010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는 이번 시즌 JLPGA 투어 상금 1위를 달리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

한 신지애는 2009년 LPGA 투어에서도 상금 1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모두 상금 1위를 한 선수는 없다.

신지애는 2016년과 2018년 일본에서 상금 2위까지 올랐지만 아직 1위로 시즌을 마치지는 못했다.

이번 시즌 신지애가 상금 1억3269만엔으로 1위, 올해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한 시부노 히나코(일본)가 1억1741만엔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토트 저팬 클래식의 우승 상금은 22만 5000달러로 일본 엔화로 환산하면 2400만엔 정도 된다. 현재 신지애와 시부노의 격차는 1528만엔이다.

신지애는 지난주 JLPGA 투어 미쓰비시전기 레이디스에서 준우승했고, 시부노는 LPGA 투어 타이완 스윙잉 스킨즈에 출전해 공동 39위에 올랐다.

토트 저팬 클래식에 나란히 출전하는 신지애와 시부노의 결과에 따라 JLPGA 투어 시즌 상금왕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JLPGA 투어는 이번 대회가 끝난 뒤로



도 3개 대회가 더 남아 상금 1위 경쟁은 시즌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지애는 미쓰비시전기 대회를 마친 뒤 J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며

"남은 경기가 기다려지며 상금왕 타이틀 획득을 위해 전력으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23)을 비롯해 시즌 2승의 허미정(30)이 출전하고 김민경(31), 김효주(24), 유소연(29) 등도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2019시즌 LPGA 투어는 이번 대회와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까지 2개 대회만 남은 가운데 올해의 선수에 고진영(24), 신인상은 이정은의 수상이 이미 확정됐다.

상금 부문은 고진영이 271만달러로 선두, 이정은이 197만달러로 2위를 달리고 있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의 우승 상금이 무려 150만달러나 되기 때문에 상금 1위는 시즌 최종전 결과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즌 14승을 활짝한 한국 선수들이 역대 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우승 기록 15승을 넘어선다면 남은 토트 저팬 클래식과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모두 휩쓸어야 된다.

한국 선수들은 2015년과 2017년에 15승으로 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박정환, 5개월 만에 한국 바둑 랭킹 1위 탈환

박정환 9단이 5개월 만에 한국 바둑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박정환은 한국기원이 5일 발표한 11월 프로기사 랭킹에서 1만3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박정환이 국내 정상의 자리를 회복한 것은 6월 신진서에게 1위를 내준 이후 5개월 만이다.

박정환은 10월 한 달 동안 융성전 우승, LG배 결승 진출 등 8승 3패를 거두며 랭킹 점수를 21점 끌어올렸다. 특히 신진서와 맞대결한 융성전 결승에서 2승 무패로

우승을 차지한 것이 랭킹 변동에 큰 영향을 줬다.

신진서는 10월 7승 3패로 선전했지만, 랭킹 점수 6점을 잃어 2위(1만18점)로 내려갔다. 박정환과 격차는 18점에 불과하다. 변상일 9단과 신민준 9단이 각각 1계단씩 상승해 3위와 4위에 올랐다.

이승훈 9단은 2계단 하락한 5위다. 여자 기사 중에는 최정 9단과 오유진 7단이 각각 2계단 내려간 25위, 90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1월9일(토)  
▲광주호산회 11월9일(토) 대둔산단풍산행, 06:30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1월10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11월 10일(일) 함안 방어진 패방산 & 입곡유원지 단풍 산행, 영주제 07:30 대인광장 07:50 동광주출 08: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산사모산악회 11월10일(일) 무주 적상산, 영주 모아레포즈 입구 06:10, 상무 무각사

06:20, 광주시의회 06:25, 운남 21세기병원 06:35, 수완 지하도 위 승강장 06:4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6:50,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존협회 11월10일(일) 지리산(성삼재-노고단-피아골), 06:40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출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존협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광주산친구산악회 11월10일(일) 고창 선운산 산행, 영주동 체육관 정문 06:30, 예스엘오 양병원 06:35, 월산동,오민석신경외과 06:38, (구)남구의회 맞은편 06:40, 농성동 S-OIL 주유 06:45, 신세계백화점 육교옆 06:50, 문예회

관 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 도로변 07:00 ※다음카페 광주산친구산악회 ☎ 010 6462 5014  
11월1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1월13일(수) 경복 봉화 청량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 화동 현대물류 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1월1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 16일(토) 충남 홍성 용봉산/수암산 암릉조망산행, 봉선동 롯데슈퍼 앞 6시10분,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6시20분, 영주 체육관 6시30분, 한국병원 앞 6시40분, 문예회관 후문 6시50분,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7시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광주호산회 11월16일(토) 두문산 단풍산행, 06:30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햇빛산악회 11월16일(토) 목포 해상K 불가(왕복) 유달산, 고하섬 탐방 천사대교 관광, 광주역 앞 08:00, 운암동 예술회관후문 08:15, 비엔날레주차장 08:20, 하남-80m 신한은행 08:40 ※다음카페 광주햇빛산악회 ☎ 010 3131 3580  
11월17일(일)  
▲전남산악회 11월 17일(일) 대전 유성구 도덕봉 금수봉(532m), 월드컵주차장 06:30, 운진각 앞, 양동시장, 광주역 07:00, 두암동 흡플러

스 07:10, 농산물공판장 앞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4615-5810, 010 5378 5702  
▲광주산악회 11월 17일(일) 전남 영암 월출산, 모아레포즈 07:00, 금호지구대 07:05, 무각사 07:10, 시청 07:15, 문예후문 07:15,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음카페:광주산악회 ☎ 010-3603-7718

**정정공고**  
2019년 11월 5일 재제된 주식회사 포부스산업 주주 중 지주들을 지주등으로 정정공고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박 정환(19620220-XXXXXX)  
· 피후수: 원광도 목포시 영산동 601, 101동 703호 (이현동, 대성빌딩2층203호)  
· 동거가족: 정광도 목포시 영산동 601 피상속인 박정환의 원 피상속인의 대위에 상속한정승인을 공증받았으므로 2019-11-18자로 신변하여 2019년 10월 31일 사망 인종이었던 피상속인에 대한 유언장이나 유 상속자는 권고로써만 신고 기간내에 재판신청을 하거나 배타적 유 계를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2019년 11월 6일  
· 상속인: 1.정환민(61083-XXXXXX) 전남남도 무안군 무안읍 오도정길 10 2.정환수(60616-XXXXXX) 전남남도 목포시 백련동297연립 20, 201동 1504호 (이현동, 하림2층203호) 3.정환은(60819-XXXXXX) 전남남도 목포시 영산동 610, 101동 703호 (이현동, 대성빌딩2층203호) 4.정환익(61048-XXXXXX) 전남남도 목포시 영산동 610, 101동 703호 (이현동, 대성빌딩2층203호) 5.정환영(64018-XXXXXX) 전남남도 목포시 영산동 610, 101동 703호 (이현동, 대성빌딩2층203호) 6.정환진(60809-XXXXXX) 전남남도 목포시 백련동297연립 20, 201동 1504호 (이현동, 하림2층203호)  
· 신고기간: 2019. 11. 6. ~ 2020. 1. 15  
· 재판신청소: 상속인 5.정환영씨 주소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2관	말레피센트 2
3관	82년생 김지영, 가장 보통의 연애
4관	82년생 김지영
5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6관	82년생 김지영
9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조커
7관	세네커플 날씨의 아이
8관	말레피센트 2, 빅 워시
8관	세네커플 빅 2: 황금열쇠 대소동 퍼펙트맨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기후전시 무등산** 11.7~12.1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8회 정기연주회 말러교향곡 1번: 거인** 11.21(목) 7:30pm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이름다운 작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이태리 여행** 11.27(수) 7:30pm 광주문화회관 소극장